

교황, 불교 잘못 이해하고 있다

“불교는 부정적 세계관의 종교” 편협한 입장보여

「희망의 문턱을 넘어」를 읽고

가톨릭 교계의 권위를 상징하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수상집이 최근에 한국말로 번역, 출판되었다. 이렇하여 「희망의 문턱을 넘어」라는 책 제목의 상징적 비유를 보면 그의 끊임없는 현실참여와 낙천적 태도가 엿보인다. 이 수상집은 그가 교황 즉위 15년을 맞이하는 1993년 10월 이탈리아 텔레비전 기자의 서면질문에 응답한 친필수고를 편집 정리한 것이라고 한다.

모두 서른 다섯 개의 질문과 그에 대한 교황의 답변 가운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열 네 번째 항목으로 북대서양을 거탄한다는 점이다. 가톨릭 교황이 종교간의 대화에 긍정적이라는 사실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그의 현실 참여적 발언에 접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 이번의 수상집을 통하여 우리는 가톨릭 교황으로서 타종교에 대한 그의 뚜렷한 태도를 알 수 있다.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을 분명히 하여 수상집의 독자로서 하여금 교황의 태도를 규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첫째, 교황은 가톨릭 교계의 권위로써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종교들의 존립 근거를 문화의 다양성에서 찾지

않는다. “모든 민족들은 단 하나의 기원을 가졌고, 또한 단 하나의 최후 목적이신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라는 인용이 보여 주듯이 모든 종교들이 궁극적으로 하나의 종교 즉 하느님의 종교로 수렴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따라서 “가톨릭 교회는 이들 종교에서

특별기고

발견되는 종교 성스러운 것은 아무 것도 배척하지 않는다. 그들의 생활과 행동의 양식뿐 아니라 그들의 규율과 교리도 거저 없는 존경심으로 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가톨릭)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깊이요, 진리요 생명이요’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으며 또 반드시 선포해야 한다.” 이는 교황 스스로 타종교를 기독교의 테두리 속에서만 인정하겠다는 배타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교황의 불교관 뿐 아니라 여타 종교에 대한 태도는 기독교 중심적인 배타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타종교 가운데에도 교황이 각별히 관심을 기울인다는 불교의 주제에 대한 교황 성하의 권위 있는 견해



를 들어보자.

교황에 따르면 불교는 그리스도교와 마찬가지로 ‘구원의 종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교리가 상반된다고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불교는 유신적 체계에서 보면 여전히 무신적인 체계요, 붓다가 경험한 ‘깨달음’은 세상이 잘못되었다는 부정적인 인식에서 비롯되었으며, 따라서 악의 근원인 세상으로부터 초탈 내지 무관심해짐으로써 불교의 정신적 구도과정의 정점(頂點)인 열반에 이른다고 이해하고 있다. 기독교는 세상에 대해 긍정적, 불교는

부정적 따라서 불교는 무신적 체계로서 하느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방법을 제시하는 종교로 파악된다.

혹시 기독교의 신비적 전통을 들어 불교와 유사성을 들먹이는 접근에 대해서도 교황의 편협한 배타성은 한 치의 여유를 두지 않는다. 즉 기독교의 신비주의는 하느님의 계시에서 온 것이 결코 불교식 금욕과 부정적 깨달음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요컨대 가톨릭 교황의 타종교관 내지 불교관은 기독교 중심적 선교의 태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에게서 대화와 관용의 태도를 기대할 수 없어 보인다. 아직도 종교간의 만남이 의례적 수인사에 그치고 마는 현실이 어디에 기인하는지를 가능하는 호재가 이번의 교황 수상집에서 발견된다. 그 원인은 기독교의 배타주의를 여전히 성서의 역사성에다 정초하려는 몇몇 노력에 있다. 상대주의와 회의주의가 만연하는 현대에 아직도 가톨릭은 하느님의 유일-절대-진리성에 기초한 선교에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명심할 필요가 있다.

심재룡

(서울대학교수·철학)

명사추천 불서100선

숫타니파타

부처님 목소리 들리는 인생 지침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 가운데 소중히 여기고 있는 숫타니파타(Sutta-Nipata)는 범구경과 같이 늘 곁에 두고 읽는 보배로운 부처님 말씀이다. 팔만사천이라고 일컬어지는 수많은 법문이 있지만 어떤 것은 길고 높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 그러나 이 숫타니파타만은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든 늘 읽고 생각하면 알기쉬운 말과 명쾌한 철리로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속삭여주시고 넉넉히 깨우쳐 주시고 미소를 머금으시며 그윽히 바라보시는 느낌을 절로 내게끔 한다.

왜 그러한 느낌이 드는가 하면 숫타(Sutta)는 경(經)이란 말이고 니파타(Nipata)는 집성(集) 즉 ‘부처님의 첫 말씀’을 모아 엮어놓은 경집(經集)을 말하기 때문에, 자연히 부처님의 은화하고 자상하신 말씀을 직접 듣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숫타니파타는 경전이나 성전의 불교 초기성립상 최초의 것에 속하므로 아주 중요한 경집으로 취급되고 있다. 부처님의 설법체계를 ①운분의 시기 ②산문의 시기 ③경·율·논 삼장의 성립시기 ④남방 삼장의 시기 ⑤대승경전 성립시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숫타니파타는 산문이 시작된 아쇼카 대왕(BC268~232) 이전의 문헌시대보다 더 오래 되었다고 보는 고전중의 고전으로 일컬



조용길 (동국대학교수)

간결 소박한 운문 형식의 초기경전

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4장(시의 장)과 5장(피안고 이르는 길)은 더욱더 오래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경집은 불교의 가장 초기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초기유언을 들을 수 있는 절도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부처님 말씀이 그후 제자들에게 의해 외우기 쉬운 운문의 형식으로 구전 구송되어 오다가 그것이 범어(산스크리트어)에서 남방의 팔리어로 정착되어 최초의 경전으로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후의 다른 어떤 원시경전이나 대승경전보다 부처님의 유언을 그대로 들을 수 있어 부처님의 진면목을 그대로 대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것은 간결, 소박한 초기불교사상을 잘 알 수 있는 길잡이의 선봉으로써, 불교가 어렵고 고차원적이고 깊이만 있어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현대인들에게 인생의 지침서로서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범(梵)의 장에서는, ‘범의 죽이 풀에 퍼지는 것을 악으로 다스리듯이, 치미는 분노를 억누르는 수행자는 이 세상(이승)과 저 세상(저승)을 다 함께 버린다. 마치 범이 죽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라고 되어 있고, 파멸에 이르는 길 이 무엇인지를 담담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귀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말씀하시고 계신다.

성자는 어떤 것이 성자이며 이법(佛法)에 맞는 행풍이 무엇인지도 설하시고, 어떤 도덕을 지킬 것이며 정진은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 처음 본인이 이 숫타니파타를 대하였을 때는 밤새는 줄 모르고 읽었고, 불교방송 개국 후 2개월 동안 이 숫타니파타를 중심으로 매일 아침방송을 한 바도 있어 매우 친근하고 고마운 길잡이다.

늘 가까이 계신 부처님을 이 숫타니파타를 읽고 생각하므로써 나는 그 분을 모시고 있다.

신영훈 「절로가는 마음」 청소년 권장도서 선정

사회의 독특한 건축기법과 우리 고유의 조형철학을 살린 「절로 가는 마음」이 한국건축문화위원회가 선정한 청소년 권장도서로 결정됐다. 「절로 가는 마음」은 문화재 전문위원 신영훈씨가 목수의 경험을 통하여 절의 건축물과 담, 불상을 비롯한 조형물, 불화 단청 조각을 통해 얻은 배경을 밝힌 우리나라 건축 및 미술사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서.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분류
1	부처님 평	이정범 외	불지사	아동
2	무소유	법정	범우사	문학
3	산발하는 날	현진	해인사출판부	수상
4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	경현 외	출판인	법어
5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유홍준	정리과비평가	수상
6	한글 아함경	고익진	동대출판부	경전
7	현학의 울음소리	박희선	불교영상	전기
8	자네, 도가 뭘지 아니	효립	대원정사	수상
9	홍문화박사의 건강진수	홍문화	한강수	건강
10	불교상식백과	홍사성 외	불교시대사	교리

구입문의: (02)737-0695

우리 불교역사 알기 쉽게 풀이

불교사 3권 동시 출간

한국불교사를 다룬 세 권의 책이 최근 동시에 출간돼 우리 불교역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야기 한국불교사」, 「인물로 보는 한국불교사」, 「불교사 100장면」이 그것들로, 각기 독특한 불교사관과 서술방법으로 한국불교사를 구성하고 있다.

「이야기 한국불교사」(김현준 지음, 효립)는 제목에서 드러내고 있듯이 「삼국유사」, 「삼국사기」, 「해동고승전」 등의 문헌에서 108개의 불교관계 기사를 인용해 「이야기식」의 서술방법을 채택, 불교사에 문외한인 독자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장점을 갖추었다.

이와 함께 이 책의 독특한 역사관이 주목을 끈다. 저자는 구정승님과 함암선님의 예를 빌어 자신의 불교사관을 ‘꺼지지 않는 구도열정과 목숨을 건 정법수호’로 압축하고 있다.

이같은 불교사관은 왜곡된 불교역사를 바로잡자는 뜻과 함께 긍정적인 시각으로 우리 불교를 바라보자는 바람의 표시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이야기 한국불교사」는 ‘왜 고려불교가 기복의 불교이고 의례불교인지, 또 조선의 불교는 어떤 이유에서 무기력한 불교로 평가되는지에 대한 도전적인 질문으로 시작한다.



김현준씨

정의형씨

혜봉스님

- 이야기... 구도열정·정법수호 과정서 파악
- 인물로... 민중복지·역사발전 기여도 분석
- 불교사... 주요 장면 100편 일목요연 정리

김현준씨는 「고려사」의 왜곡된 역사기술, 조선시대의 억불정책, 일제시대의 한국불교 주체성 말살에 그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고 “우리 불교의 흐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려·조선의 불교가 생명을 잃은 불교도, 허무한 불교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야기 한국불교사」는 불교인들에게 선인들의 구도열정과 정법수호를 위한 피나는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불교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하기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각 인용문의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음과, 색인표를 달지 않아 불교사를 더 자세히 공부

하고자 하는 독자들의 욕구를 비껴가고 있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정의형씨의 「인물로 보는 한국불교사」(말말)는 불교 또는 불교인이 ‘민중의 복리과 역사발전’에 얼마나 이바지했는가라는 다분히 민중사관에 입각한 기준으로 불교사를 바라본다.

역사에 큰 자취를 남긴 불교인물들을 통해 불교사를 구성한 특징을 보이는 이 책은 ‘외형적인 불사를 크게 일으킨 사람’이라면 무조건 ‘고승’으로 추켜세우는 것은 잘못된 인물평가이며, 설사 민중의 복리를 위해 돌바친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배권력의 눈에 거슬렀다면 무조건 ‘요승’으로 깎아내리는

것도 역시 잘못된 인물평가’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즉 우리 불교사를 ‘거꾸로 읽어 바로잡는’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신라시대의 고승으로 추앙 받아온 자장스님이 ‘친왕실 사대주의 모화사상가’로 평가절하되는가 하면, 요승으로 매도되었던 묘청 신돈(권조) 우본스님 등을 ‘사회의 현실과 민중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사회개혁을 위해 적극 나선 분’으로 ‘복권’시키고 있다.

한편 「불교사 100장면」(혜봉 지음, 가람기획)은 불교사의 주요부문을 100항목으로 나눠 관련사건과 함께 불교사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역사로 읽는 불교인문서’로도 읽힌다.

「불교사 100장면」은 위의 두 책과는 달리 석가탄생과 경전의 성립, 불교의 중국 전파, 한역경전의 성립 등을 다뤄 한국불교사 이해를 위한 배경설명에 앞부분을 할애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책 뒷부분에는 ‘불교사 연표’를 실어 독자들의 불교사 이해를 도운 점도 돋보인다.

그러나 이 책은 방대한 불교사를 100항목으로 분류한 자의성이 강하다는 점과 너무 축약된 서술이라는 아쉬움을 남긴다.

이들 책이 본격적인 한국불교사 연구와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불교사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정성운 기자)

끊임 없이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ENERGY 절약형 각종 공업로 설계 제작 시공 전문업체

세계의 기계공업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저희 금강 엔지니어링은 세계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그동안 미국의 선두업체인 ATMOSPHERE FURNACE COMPANY와의 기술 제휴로 열기술 및 고성능의 공업 용로에 대한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의 새로운 노하우를 축적하였습니다. 이제 혁신적인 기술력을 지금까지 깊은 관심으로 지지하고 성원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내보이겠습니다.

- 영업품목 · 산업용로 제작 (가열로, 소둔로, 비철금속용해로, 각종 분위기로, 전기로, 요업용로)
- 전기 제어 장치
 - CERAMIC FIBER
 - 각종 로 재료 판매 및 시공
 - ADI 열처리

전력을 다하는 기업

K/E 금강엔지니어링
KUENG KANG ENGINEERING

부산시 금정구 부곡 2동 273-2
TEL.: (051)512-7242~3
(051)517-3488~9
FAX: (051)514-3593

USA ATMOSPHERE GROUP INC. 기술계류